

# 다문화 사회 이주민과 종교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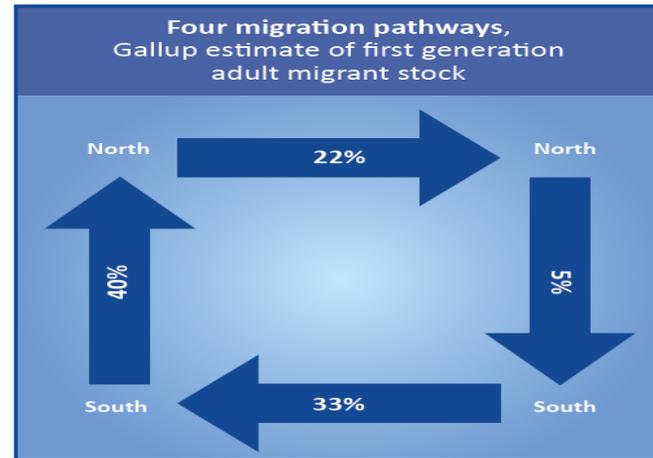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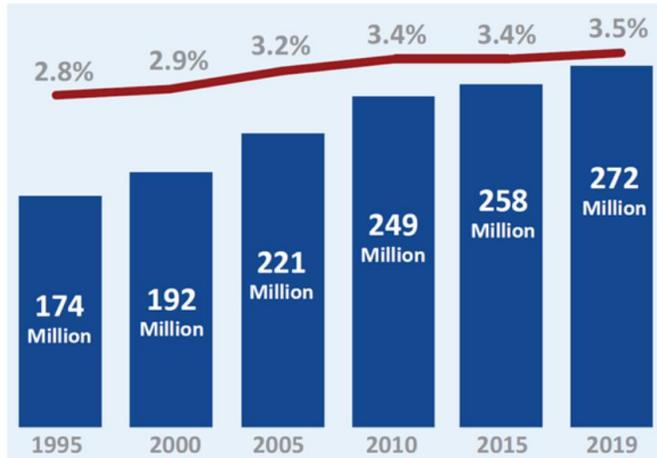
오경석(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

# 목차

1. 이주 그리고 다문화 사회
2. 한국의 이주민 지형
3. 이주민과 종교 다양성
4. 이주민 공동체와 종교
5. 2022 이주민종교실태조사
6. 경계를 넘는 사랑과 평화의 허브로서 교회

# 1. 이주 그리고 다문화 사회

## 21세기 메가트렌드,이주



- 전세계 7명 중 1명은 “누구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국내든 국경을 넘던 이동을 한 사람들”
- 이주의 급진화, 탈지역화 : ‘사람중심의 원칙’, ‘인권적 원칙’, ‘성인지적 원칙’, ‘아동친화적 원칙’, ‘범정부 및 범사회적 원칙’에 의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 단계에 걸쳐 이주자와 그들 가족 인권의 실효적 보장”(국제이주기구)

# 1. 이주 그리고 다문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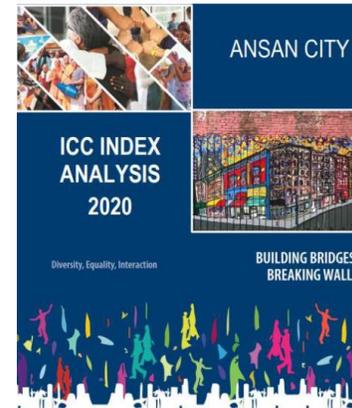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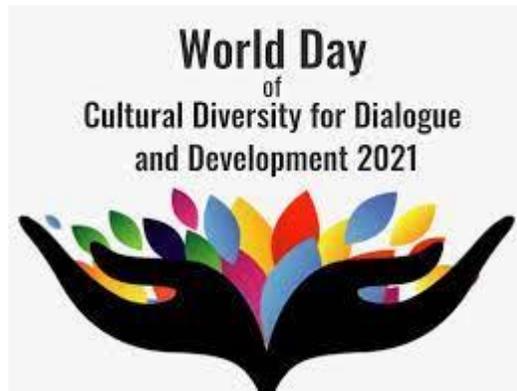
## 지속가능한성장 2030과 이주



- 전인류 공동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하고,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이주
- 출신국, 통과국, 수용국 사회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발전에 이민자들의 기여 필수적

# 1. 이주 그리고 다문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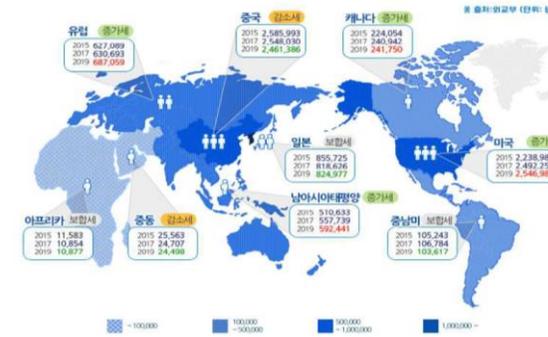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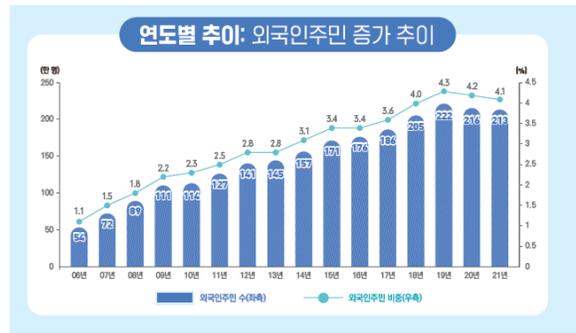
## 문화다양성, 두 가지 전망



- “각 집단과 사회의 독특함 속에서 구현되는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UN)
- “정치적 신념, 하위(소수) 문화, 지역 문화 등 삶의 각 영역에서 다원성이 혼재하는 사회”(Parekh 2006)
- “다양한 문화, 국적, 민족, 종교집단이 같은 영토 내에 살면서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개방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사회”(유럽평의회) : 다양성, 평등, 상호작용, 주민권
- 두 가지 전망 : 자유와 자원의 증폭 vs 갈등과 분쟁의 일상화

## 2. 한국의 이주민 지형

### 후발이민국가 한국



중국 (한국계)	베트남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523,073명	200,265명	193,073명	158,567명	59,898명	57,815명	40,870명	40,415명
31.7%	12.1%	11.7%	9.6%	3.6%	3.5%	2.5%	2.4%

- 저출산, 고령화, 절대인구 감소 vs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 인구
- 전체 인구의 4% 상회, 대구시 규모, 15년간 4배 이상 증가, 향후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 한국의 이주민 지형

### 미등록체류자와 난민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체류외국인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불법체류 외국인'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390,281	392,196
'불법체류율' (%)	11.6	11.3	10.2	11.5	15.0	15.5	19.3



**2,341건**

2021년 한 해 동안 총 2,341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습니다.



**72명**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2명입니다.



**1%**

2021년 난민 인정률은 1%입니다.



**1,156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는 총 1,156명입니다.



**45명**

2021년 한 해 동안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입니다.



**2,412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인도적 체류자는 총 2,412명입니다.



**73,38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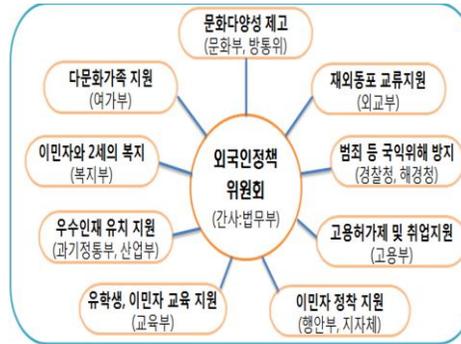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은 총 73,383건입니다.

- 체류기간 초과, 자격외 활동, 출입국관리법 위반 :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2만여명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난민법)

# 2. 한국의 이주민 지형

## 제도와 사회적 인식 사이의 간극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학생〉	〈외국인(주민)〉
여가부	법무부	고용부	교육부	행정부
↓위임	↓위임	↓위임	↓위탁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산업현장단)	교육청	지자체
↓직접/위탁	↓고유업무	↓고유업무	↓고유업무	↓직접/위탁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여권/비자 등) (인민지교관)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장소 (43개)	(다문화가족) (외국인고용) 고용센터 (36개)	(다문화학생) (외국인교육) 외국인력 지원센터 (30개)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등	(외국인 생활지원) 외국인 생활지원센터 (58개)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훑어보기**

2022년 8월 30일, 9월 14일, 9월 28일  
 국회도서관 비층 소회의실

-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정책드라이브로 단기간에 외국인 관련 법제와 인프라 구축
- 이민청 신설 : 단기방문자, 도구적인 기여 < 사회구성원, 전인적인 참여
- 쟁점 : 급성장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 사이의 심각한 간극 : ‘주변인’, ‘보이지 않는 존재’, ‘보여서는 안되는 존재’인 이주민

# 3. 이주민과 종교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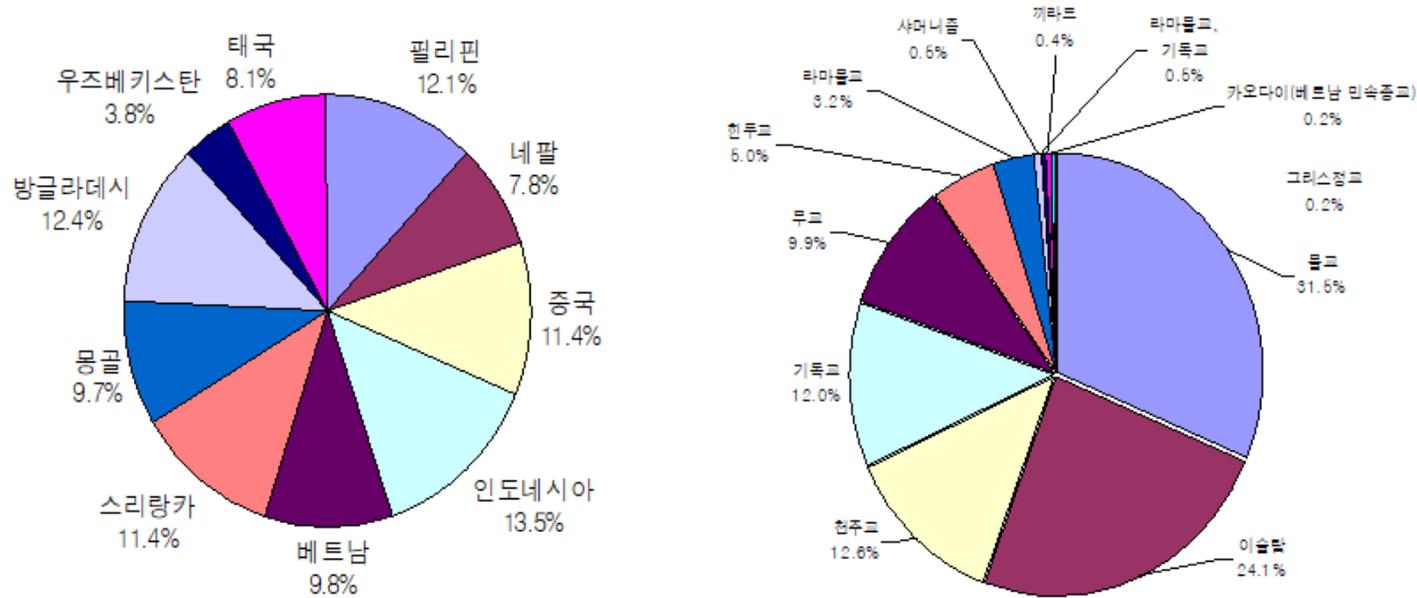
## 이주민과 종교

- 종교, 가장 중요한 문화의 요소
- 이주민들에게 종교의 의미 : “정체성 유지, 종족적 연대, 체류국 사회 적응의 완충제이자 디딤돌”(임정수 2016), “소외와 혼동에 직면한 이주민들에게 윤리적 토대와 미래 전망 제시”(엄한진 2010)
- 이주민으로 인한 체류국 사회 종교의 다양성 확장, 그로 인한 종교/문화간 갈등의 위험도 증폭
- 대부분의 이주민 출신지역과 상이하게 다른,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적인 종교 감수성 및 규범
- 쟁점 : 다원주의 사회 종교의 역할에 대한 논쟁적 평가와 전망



## 4. 이주민 공동체와 종교

###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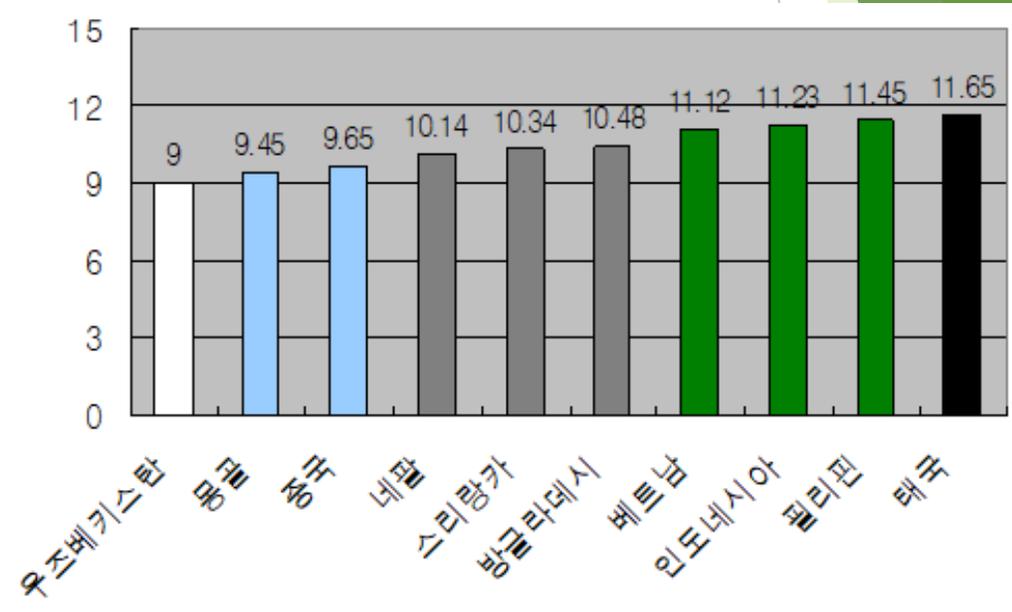


- 문화적 다름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평화와 융합의 기제로 선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 타진
- 10개국 출신 703명 : 높은 종교율, 종교다양성

# 4. 이주민 공동체와 종교

## 출신지역별 상이한 주도 종교 및 종교충성도

		국가										빈도(%)
		필리핀	네팔	중국	인니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벱	태국	전체
종교	무응답,무효	9(10.6)	3(5.5)	52(65.0)	3(3.2)	25(36.2)	2(2.5)	12(17.6)	15(20.8)	3(11.1)	9(15.8)	133(19.3)
	그리스정교									1(.37)		1(0.1)
	기독교	5(5.9)	3(5.5)	6(7.5)	32(33.7)	13(18.8)		9(13.2)	1(1.4)			69(10.0)
	깨다르		2(3.6)									2(0.3)
	라마불교							32(47.1)				32(4.7)
	라마불교, 기독교							6(8.8)				6(0.9)
	무교		1(1.8)	21(26.3)		26(37.7)		6(8.8)		3(11.1)		57(8.3)
	민속종교					1(1.4)						1(0.1)
	불교		19(34.5)	1(1.3)		3(4.3)	75(93.8)				48(84.2)	146(21.2)
	샤머니즘							3(4.4)				3(0.4)
	이슬람				59(62.1)		2(2.5)		55(76.4)	20(74.1)		136(19.8)
	천주교	71(83.5)				1(1.4)	1(1.3)					73(10.6)
	힌두교		27(49.1)		1(1.1)				1(1.4)			29(4.2)
	전체	85(100)	55(100)	80(100)	95(100)	69(100)	80(100)	68(100)	72(100)	27(100)	57(100)	688(100)



- 출신국 공동체 및 다국적 공동체 내 갈등의 주 요소로서 종교 : 국적, 언어, 출신지역에 비해 강하게 작동하는 종교별 유대감과 응집력

# 5. 2022 이주민 종교실태 조사

## 기여와 시사점

- 지역 이주민들의 종교심과 종교 활동 실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 분석: 평화롭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형성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촉발점 및 근거자료 제공
- 시사점 1) 이주민 공동체의 종교적 다양성과 충성심 재확인 : 주류사회와의 종교적 갈등의 개연성
- 시사점 2)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종교율 : 이주민들의 세속화, 취약해진 종교의 도덕적, 문화적 구속력, 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 쇠퇴, 종교의 주변화
- 시사점 3) 종교생활의 유익과 체감도 :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라는 희망과 그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현실, 종교의 이주민 케어 미흡
- 시사점 4) 개신교에 대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평가 : 선구적이며, 열정적인 헌신과 기여
- 시사점 5) 이주민을 위한 교회의 역할 : 실질적인 적응 지원에 우선하는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 6. 경계를 넘는 사랑과 평화의 허브로서 교회

### 다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대

- “이주하는 인간(Homo Migrans)은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박종수 2018) : ‘인간, 이주, 종교, 문화’의 분리불가능성
- 비가역적이며 회피불가능한 이주의 시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교회의 역할 : 창의적, 능동적, 차별적 대응의 필요성
- 이주민을 대상화, 타자화하는 세속적 관점과의 결별 :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지역민, 가정의 구성원, 고유한 개성을 가진 사람, 연약한 인간, 동역자, 신실한 교인
- 문화적 감수성과 포용성 : 탈편견, 사실과 경험에 기반한 접근
- 우선순위 : 가장 취약한 이주민을 최우선으로, 울타리/집/피난처/쉼터/휴양지 같은 곳이 되어주기 + 마음의 위안과 쉼, 소속감과 유대 제공
-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교회의 역량, 양성과 축적 : 다언어 심리상담가, 문화적 귀를 가진 전도자, 당사자 사역자

## 6. 경계를 넘는 사랑과 평화의 허브로서 교회

### 변화를 향한 책임, 비전

- “(다원주의의 시대)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변화시켜 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의 책임”(한국일 2011)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른 종교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관용과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인한 일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 참고문헌

- 김명희. 2020. 현대독일사회와 종교의 관계유형 고찰 - 불교와 불교이주민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80집 1호. 한국종교학회.
- 박종수. 2018. 한국 다문화정책과 종교. 宗教文化學報 제15집. 한국종교문화학회.
- 송창식. 2021.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대응전략 :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안산환경재단.
- 엄한진. 2010. 한국사회 이주민 종교공동체의 실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 제14호. 한신대학교종교와문화연구소.
-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 2018. 유기쁨 번역. 원시문화. 아카넷.
- 오경석 외. 2007.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 오경석 외. 2019.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임정수. 2016. 한국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의 심화와 다문화 시민교육의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2016 제6권 2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정봉현. 2017.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宗教文化學報 제14집. 한국종교문화학회.
- 한국일. 2011. 이주민 선교를 위한 종교와 문화의 이해. 선교와 신학 27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 Parekh Bhikhu.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Harvard.

다문화사회 이주민과 종교다양성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